

# 공동육아어린이집의 하루흐름과 생활교육

이태경

우리어린이집 교사

생활교육은 어떠한 것일까? 말 그대로 생활 속에서 교육을 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살아 가는 생활 속에 단순히 교육활동을 넣는 것이 아니라 생활 그 자체가 교육이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정의는 아주 폭넓고 추상적이어서 자칫하면 ‘생활’과 ‘교육’이 분리된 교육을 받아온 교사세대에겐 이도저도 아닌 교육이 되기 십상이다. 왜냐하면 생활 그 자체가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흔히 교육이라 함은 ‘프로그램의 진행’으로 인식하기 쉽기 때문이다.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가 교육이라는 것은 경험하는 일상이 교육이며, 그것을 이끌고 구성하는 어른의 태도 또한 교육의 일부라는 말로 바꿔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다소 추상적이다 보니 흔히 나를 들여다보고 성찰하기보다는 일과를 구성하는 아주 형식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생활교육을 한다고 여기게 된다. 예를 들면, 나들이에서 주워온 열매를 오후 휴놀이와 연계하는 것은 일과 안에서 잘 통합된 프로그램의 예시가 된다. 그러나 단순히 활동재료로만 자연을 활용하면 ‘열매’라는 활동 중의 하나로만 그쳐 그것을 생활교육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긴 어렵다. 그 안에서 자연을 대하는 태도와 관계, 기쁨과 경외감 등 우리가 관계 맺고 살아가는 자연과의 반복적인 경험이 있어야 생활교육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생활교육은 여타 교육내용보다 훨씬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고, 교사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된다. 단순히 활동을 잘 하는 교사가 아니라 일상에서 모델이 되어 주는 교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활교육은 눈에 보이는 교육과정보다 눈에 드러나지 않는 교육과정이 더 강조되는 교육이다.

## 생활교육 = 기본생활습관 교육인가?

생활교육은 생활 그 자체가 교육이라는 관점이다. 종종 우리는 기본생활습관교육이 생활교육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으며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본생활습관교육도 잘못된 인식하에 적용되는 부분이 더러 있다. 우리는 기본생활습관을 잘 들여 주기 위해 아이들을 ‘교정’하고 있지 않나 잘 살펴봐야한다. 생활교육이란 예를 들어 아이들이 골고루 즐겁게 식사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한 교육목표를 이루고자 한다면 매일매일 교사가 먼저 즐겁게 식사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다.

생활교육에서 교사들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이미 스스로 본래 그러함(자연)

: 자연스러운 것은 아름답기도 하며 그만큼 어렵기도 한 것이다. 공동육아 교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자연과 같은 '이미 스스로 본래 그러함'을 갖는 것이다.

기다림

: '아이들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것'이라고 누군가 말했듯이 교사들은 내가 아이들을 키운다고 착각할 때 흔히 '교정'해 주려는 욕구가 마치 교사의 중요한 역할인 것처럼 되어 버린다. 기다려야 한다. 교사의 중요한 역할은 아이의 성장을 믿고 격려하며 기다려주는 것이다.

발견

: 우리는 발견하는, 깨닫는 일들이 많아지게 된다. 혹은 감탄하는 일들.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에서 내가 갖지 못한 지혜를 발견하기도 하고, 은연중에 뱉은 말에서 스스로의 편협함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아이들의 일상에서 흥미진진한 아이들의 욕구와 흥미를 발견하게 된다. 교사 스스로 발견이 많아질수록 경외감이 생기고 감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미안해지고 부끄러워지기도 하며 아이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다.

제 생긴 꼴대로

: 인정하는 것! 어쩌면 인정이라는 말은 너무 타율적인 것이다. 누구나 자기의 생긴 꼴들이 있다. 누구는 급하고 누구는 느긋하고 누구는 활동적이고 누구는 차분하다. 자기의 모양새에 따라 하루를 살아가는 모양도 다 다르다. 우리 교사들 스스로도 그러한 것처럼 아이들도 자기 모양새에 맞게 하루를 꾸려갈 수 있도록 그 꼴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어른과 아이 모두가 자유롭고 하루하루가 기쁠 수 있다.

공동육아의 하루일과

등원

: 첫 호흡의 시간이다. 아이는 개인의 공간에서 사회적인 집단의 공간으로 넘어오게 된다. 이때 아이들이 방문과 현관과 대문을 나서면서 자신을 환기하듯 터전의 문은 그 아이를 충분히 수용적이고 따스하게 감싸 안을 준비를 하는 공간이며 시간이다.

아침간식

: 개별적인 터전마다의 문화가 다르겠지만 대부분 9시경 집 또는 터전에서 준비한 간식(죽, 떡 등 요기가 되는 음식)을 먹는다. 언제나 그렇지만 특히 아침 일찍 먹게 되는 간식 시간은 더 편안하고 안정적이어야 한다. 아이들이 일찍 서둘러 나와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아직 건강한 리듬을 회복하지 못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 아침열기

: 하루일과나 소식을 나누는 자리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하루흐름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터전마다 조금씩 방법은 다르겠지만 아이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고 하루일과에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을 기뻐한다.

#### 나들이

: 자연, 지역,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시간이며 에너지를 발산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 확장된 나들이 : 긴나들이 / 먼나들이 / 터전살이 / 들살이

#### 점심

: 집단 생활문화를 만들어 가는 시간이다. 식사예절이나 식습관 등 서로를 닮아가며 태도를 익히는 시간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즐겁게 먹는 것'이 되어야 밥이 살로 간다. 이 시간은 살아있는 모듬의 시간으로 자신들의 개인적인 경험들을 쏟아내며 수다를 떠는 시간이기도 하고 영양교사와의 관계가 최대한 발현되는 시간이다.

또한 이 시간은 애석하게도 아이들의 욕구와 어른들의 욕구가 가장 다른 시간이다. 어른들은 교육의도에 충실한 시간이고 아이들은 본능에 충실한 시간이다. 입이 하는 두 가지일 '수다'와 '먹기'에 충실한 시간이니 어찌 보면 침해하기도 하다. 어른은 교육의도를 줄이고 '즐겁게 먹는다'는 가장 큰 교육의도를 중심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 자유놀이(자발적 놀이)

: 아이들이 꾸러가는 자유놀이는 교사에게 아이들을 객관적인 시선에서 볼 수 있게 하고 아이들의 진면목과 아이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 교사는 아이들의 자유놀이가 가능한 방해되지 않고 재미나게 이어질 수 있는 놀이자, 조력자, 확장자의 역할을 한다.

#### 낮잠

: 본능에 충실한 시간으로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다. 이 시간에 방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주로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스킨십이 오가고 서로에게 소속감과 안정감을 주는 시간이기도 하다. 규칙적으로 배치된 이 낮잠 시간은 아이들에게 불편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교사가 어떤 분위기로 즐겁게 휴식을 취하도록 유도하는가에 따라 아이들에게 등원거부를 할 만큼 괴로운 시간이 되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교사에게는 짧은 휴식의 시간이기도 하고 날적이를 적는 시간이기도 해 아이들의 잠드는 여부에 상당히 예민해지기도 한다. 교사 입장에서는 이런 심리적 스트레스를 어떻게 바라보고 조절할 것인가도 중요하다. 휴식은 꼭 필요하나 그렇다고 자지 않는 아이를 벌할 당위는 없는 것이다.

#### 간식

: 오후의 시작을 알리는 즐거운 오후열기 시간이다. 점심에 비해 오붓하게 담소를 즐기는

시간이기도 하다.

#### 오후살이

: 오전의 꽃이 나들이라면 오후의 꽃은 오후살이 시간이다. 특성별로는 모둠/표현놀이/흙놀이/색놀이/우리놀이/세시절기/요리/염색/프로젝트 등이 있고 형태별로는 연령통합과 방 별 활동으로 나뉜다. 시기별로는 텃밭처럼 장기 프로젝트형 활동도 있다.

#### 닫기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다리이다. 오늘의 불편했던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즐거운 내일을 약속하기도 하고 오늘의 즐거웠던 기쁨을 내일 다시 확장해 보자는 약속을 하듯, 오늘 김치를 한입 먹어 봤으니 집에서 한번 시도해 보고 내일 와서 들려달라는 성장의 설렘을 나누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 시간은 가능한 차분하고 안정된 분위기가 되도록 한다.

#### 공동육아 하루일과의 성격

##### 느슨하다(개별성 존중)

: 하루일과는 먹고 자고 노는 것을 중심으로 느슨하게 편성되어 있다. 그 안에는 물론 대 집단과 소집단의 균형, 실외와 실내의 균형과 같은, 사람이 무리하지 않고 균형 있게 사는 지혜들을 담고 있다. 그런 일반적인 하루일과 구성 원칙과 더불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률적인 하루흐름에 사람이 끼워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아이들의 호흡에 맞춰 하루가 구성된다는 것이다.

##### 변화가능하다(아이들로부터 변화)

: 나들이를 계획했다가도 아침에 있었던 특별한 사건을 계기로 아이들의 자유놀이가 더 확대될 수도 있고, 통합 활동을 계획했다가도 개별 방이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는 그 개별성을 존중하여 그 흐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과 같이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언제나 아이들에게서 나오게 되는 것이지 교사가 자기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 넘나든다

: 공동육아의 하루는 시간을 넘나들고 공간을 넘나들고 방과 방, 다양한 관계를 넘나들며 살아간다.

##### 하루/한 달/일 년을 묵혀야 제 맛이 난다

: 하루를 연결하여 한 달이 만들어지고 그 한 달들이 연결되어 일 년을 만들어 낸다. 아이들의 경험과 관계들은 나이테처럼 순환되면서 점점 확장되는 과정을 통해 드디어 자기의 몸속에 기억되는 '태도'가 된다.